

# 알제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7. 8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0

## 알제리

### I. 일반개황

면적	2,382천 Km <sup>2</sup>	GDP	1,119억 달러(2006년도)
인구	33.40백만 명(2006년도)	1인당 GDP	3,351 달러(2006년도)
정치체제	공화제	통화단위	Algerian Dinar(AD)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친프랑스	환율(달러당)	72.65(2006년도)

- 알제리는 33.9 백만 명의 인구, 넓은 국토(한반도의 10배), 풍부한 자원(석유매장량 기준 아프리카 3위) 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경제 대국임.
-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9년 현 부테플리카 대통령 집권 이후 회교무장단체에 대한 사면과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정국을 안정시켰으나, 이슬람 무력단체의 테러활동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GDP의 30%, 총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가스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의존도가 높아 경제상황이 국제유가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II. 경제 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sup>f</sup>
경제성장률	6.7	5.9	6.6	2.9	4.8
재정수지 / GDP	4.9	5.3	11.9	11.9	9.9
소비자물가상승률	2.6	3.6	1.6	2.6	3.3

자료 : IFS, EIU

#### □ 경제성장세 회복

- 알제리의 경제는 유가와 강우량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최근 수년간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기후조건 개선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여왔음. 2006년에는 막대한 가스설비 재정비로 인한 일시적 원유 및 가스생산 감소로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2007년에는 국제유가 강세 및 관련 산업투자 증가에 힘입어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 물가 안정세

-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과 디나르화의 강세 지속으로 199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2003~05년 동안에도 물가는 1.6%~3.6%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2006년에는 정부 재정지출 및 국내 소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2.6%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7년에는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임금 상승과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로 물가상승률은 소폭 상승하여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통화 정책

- 알제리의 통화정책은 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1990년에 도입된 '화폐 및 신용에 관한 법률' 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화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2002년 4월, 유동성 조절을 위해 도입한 경쟁입찰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이 중앙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수단이며, 이후 금융시장의 이자율이 보다 신속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 고유가와 원유 수출 증대로 인한 알제리 정부의 급격한 순해외자산 축적은 급격한 국내 유동성 증대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통화증가 관리 능력은 미흡한 상태임. 특히, 2006년 말 현재 총통화(M2) 증가율은 전년대비 17.4%에 달하는 등 과잉 유동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 재정수지 흑자 확대

- 현 부테플리카 정부가 확대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최저임금 인상, 교육분야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상이전지출 확대로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국제유가 상승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9%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도 9.9%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 원유 및 가스 산업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

-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강세로 외적으로는 견실한 경제 성장을 보여왔으나, 석유가스(원유, 천연가스 및 부산물)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석유 생산이 일시 감소한 200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9%에 그치는 등 유가 변동이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류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98%

(2006년 말 기준)

####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

- 2006년 말 기준 알제리의 석유매장량은 122억 배럴로 아프리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9위인 4.5조 입방미터에 달하는 등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임.
- 최근 알제리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U\$30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초과이윤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인해 외국인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신규 유전 개발 및 대규모 가스관 건설 추진을 하고 있어 당분간의 외국인 투자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인프라 확충 사업 적극 추진

- 알제리 정부는 석유 산업의 판매수입으로 생긴 여유재정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확충 및 공공 주택건설과 같은 공공부문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공공부문 사업의 민영화 추진 성과 부진

- 알제리 정부는 경제 개혁의 필요성과 민영화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2002년 테마르(Abdelhamid Temmar) 민영화 장관이 100개의 정부 소유 기업 중 매각 대상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으나, 사회노조(UGTA)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동 민영화 계획은 2003년 테마르 장관의 사퇴와 함께 중단되었음.
- 2005년 5월 테마르 전임 장관이 내각에 복귀하며 민영화 추진의 부활을 예고하였으나, 2005년 IMF는 Article VI 리포트를 통해 알제리 민영화 분야의 이행 정도는 미흡하다고 평가함.
- 알제리 정부는 최근 통신 및 건설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 및 금융산업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표명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정부는 2007년 국영

통신기업인 알제 텔레콤을 부분 민영화 할것을 발표하고, 3대 상업기관 중 하나인 알제리 국민신용회사의 매각을 추진중임. 그러나 금융서비스 부문의 저개발, 과도한 관료주의 및 법규 체제 미약 등으로 그 성과는 부진한 편임.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sup>f</sup>
경 상 수 지	7,759	11,548	20,772	29,000	32,600
경 상 수 지 / G D P	11.7	13.6	20.3	25.9	26.2
상 품 수 지	11,140	15,631	28,627	32,800	36,300
수 출	24,460	33,631	48,227	54,000	61,800
수 입	13,320	18,000	19,600	21,200	25,500
외 환 보 유 액	32,942	43,113	56,178	77,781	83,389
총 외 채 잔 액	23,353	21,821	16,900	4,400	3,8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35.3	25.7	18.6	3.9	3.0
D . S . R .	16.2	14.7	8.6	18.5	1.5

자료 : IFS, EIU

#### □ 교역실적 호조

- 유럽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대로 알제리의 원유 및 가스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품수지 흑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상품 수입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수출 증가로 인해 당분간 상품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생산량 증대로, 2006년 상품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540억 달러를 기록, 상품수지 흑자도 전년 대비 14.6% 증가한 328억 달러에 달하였음. 2007년에도 14.4%의 상품수출액 증가를 기록하며 상품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알제리의 경상수지는 전통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유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06년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수출호조로 GDP 대비 25.9%인 2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도 이같은 흑자 기조는 유지되며 경상수지는 GDP 대비 26.2%의 3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상이전수지 흑자,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유럽지역 거주자들의 본국 송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알제리의 전통적인 외화 획득원인 해외 근로자 송금으로 이 전수지 흑자는 확대 기조를 유지함. EIU에 따르면, 2002년 11억 달러를 기록했던 경상이전수지는 그 흑자폭을 확대하여 2004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함.
-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는 2001~02년에 3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IMF 추정에 따르면 원유 및 가스 산업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지출 증대로 동 적자가 2006년에는 5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는 61억 달러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부테플리카 대통령 정권 기반 강화

- 2004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연임에 성공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09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2007년 말 또는 2008년 초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 됨.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제 2차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04년 6월 군부의 실권자인 라마리(Mohammed Lamari) 장군의 사임

사태였음. 이는 알제리 정치에서 전권을 가진 중심적인 세력인 군부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함.

- 2007년 5월에 실시한 의회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FLN의 의석수가 2002년의 199석에서 136석으로 감소한 반면, 야당인 RND는 62석, MSP는 51석을 확보함으로써 의회 내 이들 정당의 의석 수 확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서방세계와의 관계 강화

-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및 외교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이념보다는 실리위주로 외교 다변화를 추구함.
- 알제리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9.11 사태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더욱 공고히 하였음.
- 전체 가스 소비량의 2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는 유럽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며 '에너지 무기화' 움직임을 보이자 알제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함.
- 프랑스는 과거의 식민지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 알제리 이주민들의 자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절대적임.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사회불안 현상 지속

-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 30여 년간 집권하였던 민족해방전선(FLN)의 사회주의 통제경제 실패로 국내 사회불안현상이 지속되어왔으며, 1996년 제정 헌법에 의한 과격 이슬람 단체 불법화 이후 회교 무장 세력과 군부와의 무력 충돌로 준내전 상태의 정국불안이 계속된 바 있음.



- 이슬람교도와 도시빈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1989년 창립된 FIS(이슬람구제전선)이 FLN의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을 형성하였음.
-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는 부테플리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진압, 사회평화정책 실시 등으로 과격 이슬람 단체의 무장투쟁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 300명 가량이 사망한 폭력 사태 및 2007년 5월 의회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두번의 자살폭탄테러 등 이슬람세력의 테러위협이 상존함.
- 이슬람단체의 무장활동외에도 높은 실업률(2006년 14.9% 추정)이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996년의 유가충격으로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1990년의 19.8%에서 2001년에는 27.3%에 달하였음. 그러나 지난 5년 간 알제리 정부의 공공고용 확대조치 및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으로 실업률은 2004년 9월 18.7%, 2005년 9월 16%, 2006년 9월 14.9%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 이슬람 테러 세력 활동 지속

- 알제리 내에는 공식적으로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인정한 GSPC(살라피스트 그룹) 등 극단주의 테러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4월에도 수도 알제의 총리집무실 건물에 연쇄 자살 폭탄 테러를 가해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7월에는 라크다리아에 위치한 군 막사에도 자살 폭탄 테러를 가해 군인 10명이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이슬람 세력의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는 지속됨.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3등급('05. 10) → 3등급('06. 10)
- Euromoney : 85/185('05. 9) → 79/185('07. 3)
- ICRG : 41/140('05. 12) → 41/140('07. 7)
- I.I. : 69/174('05. 9) → 68/174('07. 3)

##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실적

### □ 대외지급능력 양호

- 원유 가격 상승 및 생산증대로 2000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현재 수입의 29개월분에 달하는 778억 달러에 달하였음.
- DSR이 2004년 14.7% → 2005년 8.6% → 2006년 18.5% → 2007년(f) 1.5%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2006년 외채 조기상환으 급등), 총외채/총수출 및 총외채/GNI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외채상황은 양호한 편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 및 외환보유액 증가로 대외지급 능력은 양호함.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1. 15 수교(북한과는 1963. 4. 18수교)
- 주요협정: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00), 문화협정('00), 이중과세방지협정('00),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01)
- 해외직접투자(2007년 6월말 현재, 총투자 기준): 6건, 225,182천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수출은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 1999년에는 최초로 2억불을 초과하여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유망시장으로 부상하였음. 2000년~2003년 사이 수출액이 단기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곧 성장세를 회복하여 알제리 교역규모는 2006년 말 기준 4.6억불로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교역 국가 중 5위를 기록함.

## V. 종합 의견

- 풍부한 천연 자원 및 국제유가 강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에 있었던 국내 경제가 2006년 막대한 가스설비 재정비로 인한 일시적 원유 및 가스 생산 감소로 2.9%의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2007~2008년에는 관련 산업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의 점진적 증가로 대외지급 능력이 개선되었음.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신규 유전 개발 및 대규모 가스관 건설 추진 등으로 활발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북아프리카 지역의 유망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슬람 단체의 테러 위협 및 높은 실업률 등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 부테플리카 정부는 광범위한 정치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극단주의 테러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정적 정국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 유광훈  
(☎3779-6674) yu9128@koreaexim.go.kr